

한국콜마가 15일 창립 31주년에 맞춰 새 CI를 공개했다. 한국콜마 CI 변경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새 CI는 뷰티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1위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도 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주요 관계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 CI 발표와 함께 슬로건도 '커넥트 포 이노베이션'(Connect For Innovation)으로 변경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 카이스트와 우주연구센터 공동 설립

“민간 우주시대 연다”...사령관은 김동관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한화그룹의 우주산업 총괄 본부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가 민간 우주시대를 여는 첫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한화는 17일 스페이스 허브가 카이스트(KAIST)와 공동으로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든 우주 분야 연구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한화는 KAIST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설립되는 연구센터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첫 연구 프로젝트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김동관 사장, 우주산업 총괄...리더십·성과 기대 계열사 간 기술 컬래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주목



●첫 프로젝트는 'ISL' 기술 개발

스페이스 허브와 KAIST의 첫 연구 프로젝트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ISL(Inter Satellite Links, 위성 간 통신 기술)' 개발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이란 지구상공 700~2000km 저궤도(LEO : low earth orbit)에 다수의 위성을 배치해 지상에서 휴대단말기로 통신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위성 간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받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ISL 기술을 적용하면 여러 대의 위성이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운항 중인 비행기와 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가 닿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서도 인터넷 공급이 가능해지는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벤처기업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 등 ISL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다양한 우주 산업 중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은 가장 빠른 투자 회수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김동관 사장이 이끄는 스페이스 허브와 카이스트가 공동 설립한 우주연구센터에서는 ISL 프로젝트를 더불어 민간 우주 개발과 위성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다양한 기술을 연구한다. 발사체 기술, 위성 자세 제어, 관측 기술, 우주 에너지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AIST 연구센터 측은 “단순한 산학 협력을 넘어선 실질적인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내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 사장, 우주산업에서도 성과 기대

김동관 사장은 지난 3월 출범한 한화의 우주 사업 총괄 조직인 스페이스허브의 선장이다.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등 4개 회사가 '스페이스 허브'로 통합되어 있다.

김동관 사장은 스페이스허브를 출범하면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게 우주 산업”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낸 바 있다.

이번 우주연구센터 설립은 스페이스 허브가 우주사업과 관련해 외부기관과 협력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

자,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활성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페이스허브로 통합된 계열사의 기술 컬래버레이션과 그로 인해 발생할 시너지 효과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한화시스템의 통신체계 기술과 세트랙아이의 소형 위성 설계 기술이 융합되는 식이다. 이런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 경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한 위성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은 국내 유일의 민간 인공위성 제조·수출 기업인 세트랙아이의 무보수 등기 임원, 항공·방산 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등기 임원을 맡고 있다.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세트랙아이의 기술력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력, 김동관 사장이 앞서 태양광 사업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린다면 우주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관 사장은 후계구도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 우주 산업까지 본 궤도에 안착시킨다면 김동관 사장의 그룹 내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가 17일 공개한 K9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K9'의 외장 디자인, 세련되고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한층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다. 사진제공 | 기아

기아, '더 뉴 K9' 외장 디자인 선포

고급스러운 이미지 완성...‘차별화된 프리미엄’

기아는 17일 플래그십 대형 세단 K9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K9(The new K9)'을 공개했다.

2018년 4월 K9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모델로 기존 K9과 비교해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확 달라졌다. 크기와 너비를 대폭 키운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으며, 빛이 반사되는 듯한 V 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으로 럭셔리함을 더했다. 헤드램프는 슬림하게 가로로 확장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하단 범퍼는 슬림하면서도 와이드한 디자인을 택해 안정감을 줬다.

측면은 균형잡힌 실루엣과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중후한 느낌을 살렸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펜더 가니쉬와 입체적인 19인치 스피터링 휠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후면은 좌우 수평으로 연결된 리어램프와 세로형의 램프 그래픽을 적용해 와이드하고 모던함 느낌을 주었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K9은 새로운 기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고객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최초 공개

트래블 어시스트 등 첨단 기술 무장...신형 MIB3 탑재

폭스바겐이 더 강력해진 첨단 기술로 무장한 티구안 올스페이스 부분변경 모델(사진)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폭스바겐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의 핵심 기술인 '트래블 어시스트(Tra vel Assist)'다. 버튼을 한 번 터치하면 차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 및 차선을 유지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레인 어시스트(기분 탑재), 사이드 어시스트 등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합한 명칭이 트래블 어시스트다.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신형 MIB3'도 탑재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앱 커넥트' 기능이 전 트림 기본 탑재된다.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해 최초의 연결 설정을 마치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연결된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한다. 폭스바겐이 하단 카든과 함께 개발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LG, 인간 뇌구조 닮은 '초거대 AI' 개발에 1억 달러 투자

글로벌 톱3 수준 컴퓨팅 인프라 구축 내년에 초단위 파라미터 AI 개발 예정

LG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에 나선다.

LG의 AI 전담조직 LG AI연구원은 17일 열린 'AI 토크 콘서트'에서 향후 3년 동안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개발에 1억 달러(약 113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1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

초거대 AI 언어모델인 'GPT-3'가 보유한 1750억 개 파라미터의 3배를 넘어선

은 AI다. 연구원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1초에 9경 5700조 번 연산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톱3 수준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LG는 미국 AI연구소인 오픈AI가 개발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인 'GPT-3'가 보유한 1750억 개 파라미터의 3배를 넘어선

6000억 개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AI를 올 하반기에 공개한다. 파라미터는 인간 뇌에서 뉴런을 연결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파라미터 규모가 커질수록 AI 지능이 높다. GPT-3는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에세이나 소설도 창작할 수 있는데, LG AI연구원이 개발하는 초거대 AI는 언어 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추론까지 가능하다.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초 단위 파라미터의 초거대 AI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조기업 중 이 같은 규모의 초거대 AI 개발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LG는 초거대 AI 개발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고객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초거대 AI를 고객별 상담이력을 요약해주는 가상 어드바이저에 활용해 상담사가 고객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는 초거대 AI를 통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차세대 배터리와 고효율 발광 분야에서 신소재 발굴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고도화된 초거대 AI 연구,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 확보, 사업화를 위한 오픈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비대위 “대주주 일가 2명 등기이사 사임”

홍 전 회장, 이사직 사퇴 의사 안밝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남양유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정재연 남양유업 비대위원장은 17일 대주주에게 요청했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 비대위의 지배구조 개선



홍원식 전 회장

요청에 대해 “현 이사회 내에 대주주 일가인 지승죽, 홍진석 이사 2명은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확대를 이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승죽 씨는 홍 전 회장의 모친이고, 홍진석 이사는 홍 전 회장의 장남이다. 지

남달 회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남양유업 이사회 사내이사는 총 4명으로 이광범 대표를 제외한 3명(홍원식, 홍진석, 지승죽)이 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등기이사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지난해 말) 51.6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2선으로 후퇴해도 기업 지배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는 “대주주 지분 구조까지 새로운 남양으로 출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만 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한 세부 조직 인선과 외부 자문단 구성 등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